

4th 부평 신진 큐레이터 공모 <안의 눈, 제3의 시선> 최종 결과 공고

(재)인천광역시부평구문화재단 4th 부평 신진 큐레이터 공모 <안의 눈, 제3의 시선>에 지원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4th 부평 신진 큐레이터 공모는 지역 미술 담론을 제시할 수 있는 다원예술 전시 기획을 선보일 신진 큐레이터를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공정한 심사를 통해 최종 1명이 선정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부평구문화재단의 예술인 창작활동 지원과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9월 27일
(재)인천광역시부평구문화재단

1. 최종 심사결과

접수번호	지원형태	성명	비고
2	개인	박이슬	

※ 향후일정 선정자 개별 안내

2. 심사총평

부평구문화재단 4th 부평 신진 큐레이터 공모사업에 지원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본 공모 사업은 1차 서류심사와 2차 면접심의를 통해 최종 1명의 신진 큐레이터를 선정하였습니다. 지원자 분들께서 제출해주신 전시 기획서를 충분히 검토하고 심층 인터뷰를 통해 신진 큐레이터로서 자기만의 시각 언어를 확인할 수 있었고, 심의위원 모두 고심 끝에 선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심사과정에서는 지역 연구의 충실성과 독창성, 실현가능성, 잠재 가능성 중심으로 평가하였습니다. 이번 공모에서는 지역에 대한 이해와 신진 큐레이터의 관심사 혹은 사회

전반적인 문제들을 담은 기획의도가 돋보였으나, 다만 신진 큐레이터로서 주제에 대한 이론적 타당성, 선정 작가, 작품에 대한 연구가 부족했던 점이 아쉬웠습니다. 전문 지식을 갖춘 큐레이터라면 전시를 위해 특정 주제를 단순히 고르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세한 조사와 명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작가, 관람객 사이에 연결고리를 만들어내야 할 것입니다.

빠르게 발전하는 현대사회 속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갖고 최신 기술, 트렌드 등을 받아들이며 신진 큐레이터로서 더 많은 경험과 지식을 쌓아나가길 바랍니다. 그것은 독창적 주제의 전시를 잘 뒷받침 해줄 재료가 될 것입니다.

부평 신진 큐레이터 공모 사업이 신진 큐레이터들에게 새로운 것을 시도하고 실전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라며, 지원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큐레이터로서의 앞날을 응원합니다.

3. 심의위원회(가나다순)

- 김현정(뮤지엄엘 총괄디렉터)
- 유기태(플레이스 막 대표)
- 이영리(인천문화재단 아트플랫폼 팀장)
- 최윤정(독립큐레이터)